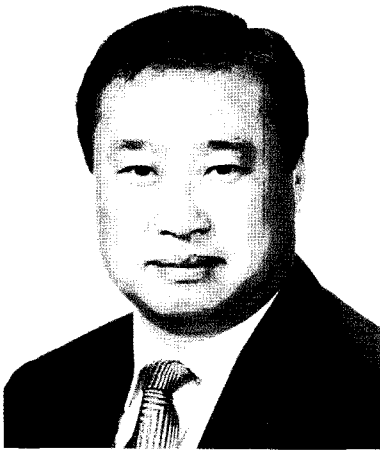


양봉산업 가치 확대를 위한 제언



배경수 회장

양봉업은 농가수가 4만 농가에 달하고 있음에도 타 축종에 비해 소외되어왔다. 양봉업이 이처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양봉농가가 양봉업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꿀벌(양봉업)에 대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법적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양봉업을 유지하려고 하니 합법과 불법의 개념도 모호한 상태이다.(사양꿀 문제 등등)

양봉업은 밀원이 없으면 양봉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숲 가꾸기 사업 등의 명목으로 수많은 밀원수들이 잘려 나갔다. 이는 정부가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이다.

꿀벌 사육은 양봉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생태계 보존과 타 농업에 미치는 영향 등이 크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다. 미국의 경우 이를 파악하고 꿀벌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꿀벌의 공익적 기능에 따른 영향은 146조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양봉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양봉업계에서 내부적으로 외치는 가치가 아닌 공식적인 연구자료나 통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벌꿀과 양봉산물 생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꿀벌의 화분매개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키로 했다. 금년부터 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양봉소재과에서 연구사업

(화문매개의 공익적 기능)을 착수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1조시장을 육성할 것이다.

또한 꿀벌을 육종/개량 할 수 있는 장기적인 연구사업으로 벌꿀의 질적향상과 대량생산을 도모하고, 천연꿀과 사양꿀, 수입꿀 구분법을 연구하여 무설탕이나 사탕무 등을 먹여 생산한 꿀과 수입꿀이 천연꿀로 둔갑판매 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다.

양봉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테두리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해 양봉농가 사료지원법을 마련, 채밀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정부의 지원 아래 당당히 사료를 급여해 벌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양봉산업의 존속을 결정짓는 밀원수 문제이다. 밀원수가 많아야 벌꿀 생산량이 수요만큼 유지될 수 있고, 다양한 밀원수와 대 단위 밀원수가 있어야 고품질의 벌꿀을 생산, 소비자 불신을 해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주들에게는 밀원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산림청 홍보를 유도하고 현재 산림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림청 국토대부(임대)사업에 밀원수 식재사업을 포함토록 추진할 것이다. 국토대부(임대)사업은 생약초, 생나물 생산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법이지만 밀원수 식재사업이 포함되면, 시·도·군단위로 양봉인들이 국유림을 임대하여 대 단위 밀원수를 식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 시행예정인 도시숲가꾸기(252ha),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도시주변 및 강 주변에 다양한 계절별 꽃이 피

는 밀원수를 식재하여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하면서 벌꿀을 생산 할 수 있는, 1석2조의 밀원식재사업이 되도록 정부관계자와 협의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양꿀 문제는 소비자에게 천연꿀과 사양꿀을 구분하여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자조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양봉인들이 걷은 자조금으로 적극 홍보하여 다시는 이런 문제가 언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협회는 벌꿀 품질인증제도의 질을 현행 보다 향상시켜, 현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홍보에 주력할 것이며, 농림부, 식약청과 협의하여 사양벌꿀 규격기준을 별도로 마련, 법적기준도 명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2010년에 개최되는 아시아양봉대회 유치를 발판삼아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 갈 수 있는 한국양봉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양봉농가 등록제를 적극 추진하여 양봉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도록 할 것이다.

다양한 양봉산물 제품을 개발(기능성)하여 양봉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기틀을 협회는 마련할 계획이다.

더 이상 양봉산업이 기타가축에 머물지 않고 전 축종 중에서 가장 가치있는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모든 양봉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는 바이다. **양봉**